



제2366호 2019년 7월 21일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먹고, 쓰면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유정란, 현미유,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한몀(삼푸, 비누)

“하느님께서서는 인류에게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사람에게 주셨다.”(창세 1,29)
흙에서 온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나는 씨앗과 열매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몸이 매일 매일 하느님 사랑을 먹으며, 매일 하느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 주일을 맞아 생명이 가득한 열매와 생명이 없는 열매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호두나 은행처럼 껍질이 단단한 먹거리는 하느님께서 적게 먹으라고 딱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에 반해 닭은 매일 알을 낳으며 “나 알 낳았소”하고 외칩니다. 달걀이 매일 주어지는 것은 매일 매일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 계란도 생명의 기운이 없는 무정란과 생명의 기운이 가득해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 유정란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정란과 유전자 조작 식품은 가격이 싼 만큼 그 열매들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없습니다. 이들을 품고 땅에 심으면 썩어버립니다. 생명의 기운, 곧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느님 사랑의 기운으로 성장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하느님을 찬미하고 살라고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맛난 음식과 아름다운 경치와 공기를 누리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먹고 입고 설거지 하는 것에서 우리농 ‘유정란’ ‘현미유’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한몀(삼푸, 비누 겸 용)’을 사용합니다. ‘먹고’ ‘쓰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값싼 제품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땅과 하천을 살리는 ‘먹고’ ‘쓰고’ 하는 수고로움의 행위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매일 매일의 생활이 되길 농민 주일을 맞아 청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식품인 ‘유정란 먹기 운동’을 이번 농민 주일에 청해봅니다.



강형섭 미카엘 신부 | 농어촌사목담당

주일 진례

- 입 당 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 본 기 도**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 제 1 독 서** 창세 18,1-10ㄴ
-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제 2 독 서** 콜로 1,24-28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 복 음** 루카 10,38-42
- 영 성 체 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동키: 오 슈렉, 제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져 봐요. 공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해요.
슈렉: 난, 아무런 할 얘기가 없어. 게다가, 설사 그렇게 고백한다 해도, 너도 알잖아. 아니, 절대 그런 말 안 할 거야. 사랑 안 하니까. 그분은 공주님이고, 난...
동키: 도깨비라서? 그야말로 답답하고 짝 막혀버렸어. 솔직해지는 게 두려운 거죠? 봐, 또 성질부리잖아. 공주님한테 한 것처럼. 공주님은 당신을 좋아해. 사랑했을지도 몰라.
슈렉: 나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영화, 슈렉)

구원자 예수님은 길거리 마구간, 말구유에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길에 계셨고, 길에 있는 이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셨으며 그분의 구원 메시지는 가난한 자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위한 장엄한 입성 길을 당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사람들은 우선, 백마 탄 왕자를 원합니다. 그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왕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강생의 연장이자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세상이 온통 백마 탄 왕자의 이미지로 사람들을 출세시켜 주겠다고 현혹할 때, 당당히 “반대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당나귀를 탄 교회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입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즈카 9.9)

교회여, 부디 화려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농부학교 모집 안내

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자연친화적인 경험으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학교를 운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정 : 8월 9일(금)-11일(일)

장 소 : 합천자연학교

참 가 비 : 형제 1인 7만원, 개인 10만원

학 년 : 4-6학년(2박 3일 동안 신나게 뛰어놀 초등학생)

인 원 : 20명(7월 31일까지 입금 선착순 마감)

계좌번호 : 농협 805058-51-039645 마산가톨릭농민회

전화번호 : 055.582.7010-2 / 팩스 055.582.7009

담당 김경옥 사무국장 010.9312.7470



전 강동주 세레자 요한 단장



현 광세옥 레미지오 단장

● 마산 레지아 제13대 단장 선출

| 마산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담당 사제: 이원태 클레멘스)는 7월 7일 제692차 월례회의에서 강동주 세레자 요한 단장의 후임으로 광세옥 레미지오 형제를 제13대 단장으로 선출하였다.

강동주 단장은 2013년 단장으로 선출되어 6년간 봉사하였다. 2003년 1월 회계로 선출된 것부터 포함한다면, 17년간 회계, 서기, 부단장, 단장으로 레지아에 봉사해 온 것이다.

새로 선출된 광 레미지오 단장은 레지아 부단장으로 봉사해 오다가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다.

● 인자하신 정녀 브레시디움 2000차 주회



| 산호동성당(주임: 이은진 도미니코 신부) 인자하신 정녀 브레시디움은 7월 5일 2000차 기념주회를 가졌다.

● 마산 레지아, 고성 꾸리아 1단계 순회기사교육



| 고성 꾸리아(단장: 김운진 수산나) 소속 단원 53명이 7월 13~14일 레지오 1단계 기사교육을 받았다. 이원태 클레멘스 레지아 담당사제는 이웃에 대한 애뜻한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성연중 베드로, 손재곤 요아킴 레지아 교육위원은 기사교육의 의미와 선교사명에 대해 강의하였다. 노순민 교육위원은 '활동체험발표'를 하였다. 참여자들도 직접 선교활동을 다녀온 후 체험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 '생명사랑과 나눔' 공모전

| 마산교구 가정사목국(국장: 이현우 신부)은 '생명사랑과 나눔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생명사랑과 나눔의 삶' 행사(10월 13일)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는 포스터, 슬로건, 글짓기, UCC, 사진으로 5가지 분야이며, 교구민은 물론 일반 시

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생명상, 사랑상, 화합상, 나눔상 등 총 18점을 시상하고, 참가자 전원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준다. 신청서는 마산교구 가정사목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제출 마감은 9월 20일이다. 심사 결과는 9월 26일 개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마태 19,16)

함안성당 김정용 베네딕도



저는 가장이기에 아내와 세 자녀의 행복을 위해 현실적인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능력의 한계를 알기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 안에서 하느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는 오늘날의 ‘부자청년’(마태 19,16-30)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던 그가 ‘슬퍼하며 떠나갔다’는 증언처럼 신자로서 잘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안에서 기쁨의 파편이라도 얻어 만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느님을 향한 선택과 결단, 용기와 의지, 곧 진리를 향한 투쟁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지난 9년 동안 청년 성령기도회에 머물면서 이러한 ‘진리를 향한 투쟁’은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선한 의지마저도 성령께 내어 맡길 때, 그분께서는 한없는 용서와 더 큰 믿음으로 저의 의지를 키워주셨습니다.

제29차 청년 성령세미나를 통해 성령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하였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으며 깨닫고 체험한 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첫째 계명만 중요하게 여기고 둘째 계명에는 관심 없는 저의 뻔뻔한 상태를 보게 하시고 ‘지금 제가 바리사이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실제 제가 사랑하는 대상은 가족과 직업상 만나는 내담자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내 삶의 팔호 밖이었고 첫째 계명을 지키는 삶에 걸림돌로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수식 이후 저는 새로워졌습니다. 어디가 아픈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 등 한 명씩 일어나서 사제의 기도를 받을 때, 저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런 변화는 기적입니다. 성령께서는 청하지 않았음에도 제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마르 10,21)에도 부자청년은 보지 못했던 것, ‘타인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산, 바다, 하늘,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구름은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풍경이었기에 아버지를 다시 만난 탕자처럼 저의 온 존재가 그냥 숙여졌습니다. 그리고는 첫째 날 주어졌던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창세 35,11)라는 말씀이 그 순간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게 나다. 내가 만든 세상은 이렇게 선하다. 가라!>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로 점점 악이 많아지고 저는 또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섬세하신 성령께서는 자주 걸려 넘어지는 저를 위해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것들로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들마저 보지 못하는 눈 먼 상태가 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기도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1년 내내 저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성령’하면 뭔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저도 9년 전에는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하며 거부했었습니다. 주일만 지켜도 행복하다면 주일이라도 지키기 때문이고, 냉담해도 행복하다면 세례라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청년 성령기도회 안에는 은총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주 모든 이에게 열려있습니다. 오늘날의 부자청년인 젊은이들이 성령 안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1

1953년 미국에서 리차드 소프가 감독하고 앤 블리스, 로버트 테일러, 스튜어트 그랜저가 주연을 맡은 영화 ‘형제는 용감했다’가 개봉됩니다.(저는 어려서 이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영화들이 비슷한 이름으로(부라더, 오! 브라더스, 나의 특별한 형제, 의형제 등) 형제간의 우애와 대립, 가족 사랑의 의미를 담은 영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영화라도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제목만큼 입에 착 달라붙는 말은 없습니다. 형제는 과연 얼마나 용감한가?

15, 6년 전 안명옥 주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교님께서 “요즘, 형 신부와는 자주 만나십니까?”라고 물으시기에 당황한 제가 “뭐, 자주 만나기보다는…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주교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예,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형제란 피하고 피하다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참 옳은 말씀이구나!… 하고 깊이 새겼습니다.

형제에 관한 속담과 격언을 보면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다. 의복이 헤어졌을 경우 새것을 얻을 수 있으나, 수족이 끊어지면 잇기가 어렵다.” 장자의 말입니다. 그만큼 가족 중에서도 핏줄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형제는 형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닮지도 않은 형제지간이라도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제가 참 싫어하는 말인데요, 아니 모든 동생이 싫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형만은 못하다는 뜻입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나의 별은

한 달여 전 피정을 다녀왔다. 주일교사를 한 이후 꾸준한 모임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오랜만의 나들이를 겸한 가벼운 피정이었다.

싱그러운 초록을 흠뻑 마시며 도착한 수도원의 지도신부님은 1박 2일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먼저 나를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는지 이름 짓기를 하자고 하신다. 나를 어떻게 불러주었으면 좋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 별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그런데 하고많은 사물 중에 왜 하필 별이 떠올랐을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노래는 가끔 불렀지만, 별과의 추억은 뚜렷하게 없는데 왜 불리길 원한 것일까? 별과의 인연을 따라가 보면 지난 시절의 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인연의 끈을 찾아보리라 마음먹었다.

이튿날 피정이 끝날 무렵 성물 판매소에 들렀다.

다양한 성물 중에 천사 모양 양초가 귀여워 집어 들다 보니 그 곁에 어린 왕자 양초가 보인다.

어린 왕자를 보는 순간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생각났다.

‘아, 그래 어린 왕자가 내 마음속에 별을 심어놓았구나. 똑똑 내 마음 두드리며 처음 만나던 날 가졌던 마음 찾아보라고 신

강연주 리디아 • 시인

영혼의 뜨락
교구 가톨릭 문인회

호 보내고 있었던 것이구나.’ 내 별의 원천은 어린 왕자임을 알게 되었다.

몇 걸음만 옮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작은 별에 사는 것이 좋았던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어린 왕자의 순수함에 반하고 여태 소식 없는 작가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 갔을 거라고 생각 했었다.

일곱 번째 도착한 별 지구에서 뱀을 만난 어린 왕자가 하늘에서 별들이 빛나는 건 언젠가는 저마다 자기별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땐 밤하늘을 한 번 쳐다보기도 했던 것 같다. 길들이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여우와의 대화를 들으며 길들이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이름 짓기를 통하여 해후한 어린 왕자가 꽃향기 한 번 맡아본 적 없고 별 하나 바라본 적 없고 누구 하나 사랑해 본 적 없이 계산에 열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되풀이하면서 살고 있다고 꼬집는 말에 귀 기울이며 가끔 어린 왕자가 사는 나의 별을 보아야겠다.

하느님 안에서의 휴가

일 시 : 8. 8.(목) 15:00~10.(토) 15:00 2박3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참가대상 : 향심기도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가비 : 16만 원
 문의 및 신청 : 055.221.1891

교구청 직원 모집

교구청 주교관 주방 근무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1명
 특이사항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만 65세 정년)
 파트타임 근무 가능한 분(면접시 조정)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주민신부 추천서, 교직사본, 각 1통
 접수마감 : 2019년 7월 31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
 면접일자 : 개별통보
 문 의 : 사무처 055.249.7016~17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교구·본당

-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 시 : 7. 24.(수) 10:00
 장 소 : 가음동성당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 습 : 매주 (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 의 :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 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 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 **레지아 교육위원 연수**
 일 시 : 7. 22.(월)
 장 소 : 교구청
 문 의 : 055.249.7115

- **체나콜로(다락방) 7월 월기도 모임**
 일 시 : 7. 22.(월) 13:00~15:00
 장 소 : 상평동성당(미사집전)
 문 의 : 회장 010.9399.5454

-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일 시 : 7. 23.(화) 13:3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담당자 010.9841.8191
 미사와 데온발표가 있습니다.

- **정의평화위원회 회의**
 일 시 : 7. 24.(수) 19:00
 장 소 : 교구청 4층 회의실
 문 의 : 055.261.8201

- **227차 여성꾸르실로**
 일 시 : 7. 25.(목)~28.(일) 3박4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055.249.7113

-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미사안내**
 베트남 공동체 미사(베트남어)
 일 시 : 매월 넷째 주 (토) 19:30
 장 소 : 대건성당 교육관 2층
 주 레 : 부반단(마르티노)신부
 문 의 : 대건성당 055.644.3323

- **고성 천사의 집 자원봉사자 모집**
 기 간 : 상시(평일 및 주말)
 장 소 : 고성 천사의 집
 분 야 : 용접
 문 의 : 055.673.6609, 010.4557.3251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 시 : 매월 첫주 (월) 10:00~14:00
 장 소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 의 : 055.237.6487

-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 용 :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 간 : 3월부터 12월
 장 소 :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 의 : 055.247.5195~7

수도회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7. 28.~31./ 8. 2.~4./ 8. 6.~8./
 8. 15.~18./ 8.28.~30./ 9. 1.~4.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기 타

-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수시 2,676명 모집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40명 모집
 원서접수 : 2019. 9. 6.(금)~10.(화)
 입학상담 : 064.805.9689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비 용 : 65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문 의 : 송진욱 신부 010.3645.9028

품 계 순 례 본 도 여 행 사 www.bundotour.com <table style="width: 100%;"> <tr> <td style="background-color: #90EE90;">8월 20일</td> <td style="background-color: #90EE90;">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td> <td style="background-color: #90EE90;">11일</td> <td style="background-color: #90EE90;">350 만원</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4682B4;">8월 20일</td> <td style="background-color: #4682B4;">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td> <td style="background-color: #4682B4;">12일</td> <td style="background-color: #4682B4;">429 만원</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8C00;">10월 12일</td> <td style="background-color: #FF8C00;">파티마, 루르드, 바뇌 성모발현지 순례</td> <td style="background-color: #FF8C00;">13일</td> <td style="background-color: #FF8C00;">399 만원</td> </tr> </table>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본도여행사 02.852.8525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10월 12일	파티마, 루르드, 바뇌 성모발현지 순례	13일	399 만원	쥬니어 음악학원 (피아노 · 바이올린) 유치부/ 초 · 중 · 고등부 / 일반부 입시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스카이힐링 파크 2층 055)263-9320, 010-2559-3551 원장 최은숙 가타리나	길모퉁이산티아고순례단모집 길순례단 9/6~9/15 (10일, 298만원) 모퉁이순례단 11/1~11/10 (10일, 298만원) (의료진/길모퉁이서포터즈동행, 일정의 출발시 별도문의) 가톨릭 이안문화사업단 www.gil1004.com 055.264.4628 / 010.9876.5000	전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10월 12일	파티마, 루르드, 바뇌 성모발현지 순례	13일	399 만원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 (10월 2일, 인솔자, 신부님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초음파 배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 부산교구 <혼인강좌> 교수 초빙

분야 : 심리학 및 유관 학문
서류 : 이력서, 교적, 박사학위증 사본
제출 : 7월 말까지 / 우편접수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8-7 가정사목국
문의 : 부산교구 가정사목국 051.441.3500

■ 제주 성지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시 : 8. 9.~11. / 9. 17.~19. / 10. 15.~17. / 11. 5.~7.
장소 : 제주성지 6곳 (성지해설)
문의 : 064.805.9689

해외성지순례 : 10. 3. 그리스성지순례 7일

■ 2019년 2학기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 031.360.7635 / 010.7470.7966
마감 : 9. 30.(월) 인터넷 '사이버성경학교'검색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 매주 (수) 14:00~17:30, 19:30~21:00
장소 : 중동성당
대상 : 신자, 일반인
내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창원지구 일일 낮피정

일시 : 8. 5.(월) 13:00~15:30
장소 : 반송성당
주제 : 내적 치유
강사 : 이영숙 베드로 수녀
미사 : 최재상 마타아 신부
문의 : 성령봉사회 010.9664.1813
* 미사준비



명례성지 건축공사 입찰공고

공사명 : 수녀원 및 순례자의 집 신축공사
현장설명회 : 2019. 8. 6.(화) 14:00
장소 : 명례성지
입찰 및 견적서 제출 : 8. 16.(금) 14:00까지
문의 : 055.391.1205
* 세부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고



우리농나눔터(생활공동체) 물품 안내

가정에서 “먹고, 쓰면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식탁	유정란	3,700원
	현미유	6,200원
주방	감식초, 현미식초	8,000원
	주방세제(펄프)	5,000원
욕실	한몸샴푸(머리-발까지)	30,000원
	맑은샘(세탁)	7,500원
	섬유 유연제	5,600원

우리농나눔터를 매 주일마다 방문해 주세요.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7. 22.(월) 19:00	월남동성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요한 3,3-8)	이해봉(토마스, 서울교구)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5072-5612
창원지구	7. 22.(월) 19:00	반송성당	감사의 힘	김향숙(마틸다, 전주교구)	허철수 신부(미카엘)	010-9969-5340
청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리자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9월 순교자 성월 특선 베트남 북부+중부 성지순례 <9/23 또는 9/30 출발 4박6일> 특별가 120만원 * 베트남항공 국제선/국내선 포함, 준특급 호텔 북부: 하노이 대성당, 서 킴대 대성당, 순교성지, 찻집 대성당, 시토회, 하롱베이 중부: 라방/짜꾸우 성모발현지, 피부 순교성당 순교자 안드레아푸엔 성당, 다낭/호이안투어 대표 이은준 요한 보스코 (마산 삼계) 투어찬스 Tour Chance Tel. 055-264-2046 M. 010-2992-4785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우리농 직매장 2호 성령공동체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30년 일본성지순례전문 나가사키&오사카 베/드/로/여/행/사 대표 노정삼 베드로 051.442.5730 010.3884.4590	Raphael Club 라파엘여행사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오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9일 (29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 9/1,9/29, 10/23 나가사키 4일 (949천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	---	--	--

바벨과 바벨탑

바벨탑은 바빌론에 있던 탑이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점령 뒤 임금과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네부카드네자르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 중 봤을 것이다. 엄청난 충격으로 보았을 것이다.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에게 이렇듯 위대한 건축물이 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바벨탑 설화는 바빌론의 앞선 문화에 대한 유대인의 독백이라 할 수 있다. 곁들여 인간의 언어가 여러 가지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창세 11,19)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 지역은 여러 신을 숭배했던 곳이다. 바벨은 아카드어로 바빌루(Bab-ilu) 신의 문이란 뜻이다. 으뜸 신에게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란 의미다. 히브리어 번역은 바벨(Bab-el) 역시 엘(신)의 문이 된다. 혼돈으로 해석한 것은 후대의 의역이다. 바빌론은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광대한 평야를 만들었고 중심도시가 바빌론이었다. 현재는 옛날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정복자들이 계속 파괴했기 때문이다. 몇몇 건물만 남아 있다. 독보적인 것이 벽돌로 만든 거대한 탑들이다. 바벨탑으로 보는 건축물들이다. 학계에선 지구라트(Ziggurat)라 부른다. 하늘 언덕이란 뜻이다. 신전(神殿)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사막의 고대인은 높은 탑을 만들어 하늘 가까에서 제사 지내려 했다. 가능한 한 높이 쌓으려 했던 이유다.

탑의 구조는 사각 단을 만들고 조금씩 작아지는 단을 쌓아올렸다. 이렇게 칠층에서 팔층까지 만들고 층마다 계단을 두었다. 그런 뒤 꼭대기엔 화려한 신전을 지었다. 우

르 지역에 있는 탑은 하단길이가 가로 62m 세로 43m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다. 이렇듯 창세기 바벨탑은 지구라트를 가리킨다. 재료는 점토를 이용해 만든 흙벽돌이었으며 부서지지 않도록 천연 역청을 발랐다.(창세 11,3).

바빌론은 네부카드네자르 때 최고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손자 벨사자르(Belshazzar) 때 페르시아에 정복된다. 이후 바빌론 영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로마 시대엔 황량한 시골로 남아있었다. 바벨탑은 하느님께 도전하는 건축물이 아니었다. 고대인의 신전과 제단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유대인은 그렇게 볼 수 없었다.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왔던 신분이었기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없었다. 바벨탑 이야기가 창세기에 삽입된 것은 바빌론 포로 시대가 끝난 기원전 6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 칼럼

김현주 율리야나 · 가톨릭여성회관 관장

농민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양파, 마늘 가격이 올해도 폭락이라고 한다. 가끔 쌀이나 농작물의 가격 폭락 때문에 화가 난 농민들이 자신이 애써 지은 농작물을 갈아엎는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식량이 없어 배를 곯고 있는 북의 형제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이 었다. 정부, 지자체, 대형 매장까지 나서 양파 판촉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이번의 양파 파동은 기후 온난화에 따라 재배지가 경기도까지 북상할 만큼 전국화되어 대체작목을 찾지 못한 농가들이 지난해 심었던 작물을 계속 심어 과잉 생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복되는 양파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경매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통단계 구조를 대폭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나서 계약재배 면적 통계를 바탕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사전면적 조절, 출하조절로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1994년에 무너져가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이하 우리농)’를 출범시켰다. 당시 경제 성장의 시장 논리에 치우친 농업정책으로 지쳐가던 우리 농업, 농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앞두고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자 교회가 취한 행동이었다. 이후 각 나라와의 FTA 협상으로 쌀 시장이 점점 개방되자 ‘식량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농민들의 목소리만으로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어느덧 우리농이 출범한 지 25년,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 운동이 활성화되고 친환경 유기농업, 도시생활공동체의 전국적 운영으로까지 확산하였다. 그러나 우리 농업, 우리 농촌이 여전히 위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향후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해볼게 된다. 유기농 제품이 비싸다는 편견 때문에 우리농 매장을 이용하는 신자가 적은데 물품에 따라서는 시중보다 오히려 싼 것도 많다. ‘제철 농산물’에 대해 제값을 치르는 것은 마땅하며, 농촌을 위한 투자로 생각했으면 한다. 건강도 지키고 농민과 환경을 살리는 생명 운동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부터 크고 작은 행사의 밥상, 선물용으로 우리농 제품을 사용했으면 한다. 이제 경남에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농민수당을 준다고 농민이 많아질까만은 농업은 국가가 끝까지 보호해야 할 산업임에는 틀림 없다.